

해남과 김양식장 분쟁...2심도 진도 승소

마로해역 어업권 두고 40년 갈등 재판부 "1심 판결 인용" 항소 기각 해남군 "대법 상고심 준비에 총력"

40년을 이어 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김 양식 어장 분쟁 항소심에서도 진도 측이 승소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해남지역 어민들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한다"며 해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남수협과 어민들은 지난 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4년 10월 6일자 합의를 통해 해남 어민들에게 마로해역 어장에 대해 확정적이고도 영구적인 어업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통상 10년 유효기간인 정식 어업면허가 영구적으로 해남 어민들에게 어업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로해역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1370ha의 김 양식 어장으로 1980년대 초부터 어민 간 분쟁이 시작됐다.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지난해 10월 마로해역에서 어민들이 충돌하는 모습.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ha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370ha의 양식장을 새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진도군수협은 지난해 기간 종료 앞두고 해남군에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를 하고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

도 마로 해역은 엄연한 진도 해역으로 판결했다"며 "양식업권이 진도 어업인 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만큼 어업인들이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과거 양군 어민 간 최초 합의된 사항 및 우리측 어업인의 생존권, 민사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의 법적 충돌 우려, 사회적 형평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해남 햇김 위판 시작... 작황 부진에 가격 2배 상승

전년보다 9일 늦게 첫 위판

120kg 포대당 36만~43만원

김 작황 부진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가운데 해남 청정바다의 햇김 생산이 시작했다. <사진>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송지면 어란위판장에 이어 27일부터는 화산면 송평위판장에서도 물김 위판이 시작됐다.

가격은 120kg 기준 포대당 36만8100원~43만 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2배가량 높은 가격에 위판이 이뤄졌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수온이 24도 안팎에서 정체되면서 김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9일 늦게 첫 위판이 시작됐다. 위판 척수도 적어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다만 10월 중순부터 수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고, 영양염 수치도 점차 회복되고 있어 11월부터는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물김은 조생종 잇바디물김으로 염채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해 일명 곱창김으로 불린다.

곱창김은 해령의 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심하고, 남해안 일대에서 10월말부터 한달정도 짧은



기간 소량만 생산된다.

일반김에 비해 빛깔과 식감이 좋고, 풍미가 뛰어나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단기간에만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햇김을 기다려온 소비자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해남군의 김양식은 올해 9607ha, 19만2140척

으로, 생산량 8만3000t, 660억원의 위판고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친환경부표, 김 육상채묘, 우량종묘 공급 등 김 양식 관련 11종 사업에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품질의 김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박희성 기자 dia@kwangju.co.kr

해풍 맞고 자란 완도 소안감귤 본격 출하

25ha 재배...올 생산량 100t

완도 소안도에서 노지 감귤 수확이 한창이다. 소안 감귤은 지난 1972년 두 농가에서 처음 재배를 시작한 이후 작목반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돼 현재 25ha에서 재배하고 있다.

소안 노지 감귤은 풍부한 일조량에,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9-11브릭스(brix)로 높다. 산도는 0.82-0.98%로 새콤달콤하다.

일반적으로 감귤은 당도가 10브릭스이면 상품이고 산도는 1% 이하여야 맛이 좋다.

소안도 작목반에서 재배하고 있는 감귤은 모두 농산물우수관리 제도(GAP)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소안 감귤은 대부분 농가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생산량은 1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확량은 다소 줄었지만 올해 여름과 가을 기상



이 좋아 감귤 맛은 지난해보다 좋다는 평가다.

완도군 관계자는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전문가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산 감귤과는 또다른 소안감귤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김형성 신안군의회 의장 등 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29일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의회 제공>

신안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하라"

신안군이 여객선 등 선박 교통 안전을 도모한다. 신안군의회(의장 김형성)가 지난 2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1004개의 섬으로 선박 교통 이용이 많은 군민들의 안전 운항을 위해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주 의원은 "여객선은 지난 2020년 10월 대중교통법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기반 시설과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 등의 문제로 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임·출항시 기준 시계 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할 것과 정밀한 해양 시정 및 전자 관측 장비 확충할 것, 여객선에 사화간 접자본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의문을 채택한 신안군의회는 전국 최초로 2007년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2018년 '신안군 신. 재생에너지 개발의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목포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목포해양경찰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레저기구 활동과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3일부터 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본격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수상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선, 낚시어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

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일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지난해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돼 5t 이상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